

데스크 시국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두어 달 전, 독일 베를린에 들었다. 중앙역 앞 횡단보도에 서자 독특한 모양의 신호등이 눈에 띄었다. ‘암펠만’ (Ampelmann·신호등과 남자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신호등 속에는 중얼모자를 쓴 땅딸막한 남자가 서 있었다. 파란불에 굽고 짧은 다리로 걸어가던 이 남자는 빨간불이 되면 허수아비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선다. 참 신기하다 느꼈는데, 이 남자는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베를린의 주요 횡단보도는 물론 핫플레 이스에서도 ‘모자 쓴 남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유명 백화점의 기념품 매장과 관광명소에서 암펠만이 선명하게 새겨진 T셔츠, 가방, 노트, 텀블러, 장난감, 접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암펠만’과 ‘코펜하겐 벤치’

암펠만이 베를린에 등장하게 된 건 독일 분단시절인 1961년부터다. 당시 동독에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 어났다. 전체 인구의 10%가 신호등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게 한 원인이었다. 급기야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자 교통 심리학자 칼 페글라우는 ‘사람들은 호감을 주는 캐릭터나 상징에 더 빨리 반응을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 신호등’을 제안했다. 이렇게 탄생한 암펠만은 동베를린의 교통사고율을 40%까지 감소시 키며 공공디자인의 힘을 보여 준 모범 사례가 됐다. 암펠만이 베를린의 상징이라면 ‘초록색 벤치’는 코

은펜칼럼



최영태
전 전남대 교무처장·인문대학장

“가죽이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 동료 교수 한 분이 올해 초 광주로 이사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서울에서 중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이 초·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교수와의 대화에서 놓 칠 수 없는 대목은, 그 교수의 배우자가 광주로 내려갈 계획을 밝히니까 동료 교사들이 ‘광주는 수는 성적도 전국에서 연속 1위이고 과외비도 적게 드니 애들 교육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위 인용문은 필자가 약 12년 전(2010. 2. 10.) 우리 지역 어느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당 시 글을 쓰면서 ‘실력 광주’라는 타이틀이 이 지역 발전 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12년 후인 지금,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주 관적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수치가 그렇게 말한다. 내 가 만난 많은 사람이 학력 저하를 크게 걱정했다. 그들 대부분은 ‘실력 광주’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기 고



윤창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전회
광주시지부장

어떤 전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명 살상을 초래하 는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 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군의 첫 파병이 이뤄 진 베트남전도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아야 한다 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쟁이다.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진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우 리나라는 4·19의거를 거쳤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 빈국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간 수출액 은 총 5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국민 1인당 GNP는 1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월남전과 같이 위험한 전역에 아무 런 해외 활동 경험조차 없는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어 찌면 국운을 가름할 중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으 로서는 파병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6·25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이 대한 보은의 차원과 한-미간 상호 안전 보장 등 불가분의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

도시를 바꾸는 사소한 것들

팬하겐의 아이콘이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클래식한 의자’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초록색 나무와 철제로 디자인된 벤치는 공원에서부터 공항이나 미술관까지 도시 곳곳에 2000여 개가 설치돼 강렬한 존재감을 뽐낸다. 100여 년 전, 시민들의 실터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벤치는 이제 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가 첫선을 보인 박성형 가로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서초구는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가 시야장애 교통표지판을 가려 보행자 안전 과 도심 경관에 장애물이 되자 사각형의 가로수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이 된 가로수를 네모 형태로 깔끔하게 손질해 파리의 명품로 바꾼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방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1176주를 ‘사각 가지치기’로 정리해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면서 부산·대구·인천·수원 등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거리는 크고 작은 공공디자인으로 저 마다의 풍경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제는 평소 눈여겨 보지 않았던 벤치나 가로수, 광고 간판, 공사장 가림막 등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는 화려한 청사진에 올인한 탓인지 소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 는 ‘사소한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아파 트 숲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공 원·벤치·교통표지판·광고간판 등에서 광주만의 정체 성을 보여 주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을 찾아보기 힘들 다. 지난 2005년 창설된 이후 9회째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말이 다.

그런 점에서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 캐스트 ‘보이지 않는 99%’의 프로듀서 커트가 강조한 ‘도시를 움직이는 디테일’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가능하게 하고,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나 발에 차이는 것들이다.”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절실

사실,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척도는 화려한 인프라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도시 인 빈·파리·뉴욕의 공통점은 숲·공원·벤치 등 삶의 질 을 높이는 공공 구조물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이들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건 공공디자인이었 다. 작은 시설물 하나라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해 명품 도시로 가꾼 것이다.
어느덧 한 해의 그드머리에 섰다. 오는 2022년에는 아시아예술공원,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관, 아시아디 지탈아트 아카이빙플랫폼 등 초대형 문화 건축 프로젝 트에서부터 일신장지와 전방 부지 개발 사업, 중앙근 름공원 특례 사업 등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자칫 거대한 ‘랜드마크’에 매 물돼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허울뿐인 문 화도시가 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의 중점 과제로 사람·자 연·문화적 감성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 고 나섰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사람 중심의 가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좋은 일이지 하지 만 이번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제안이 구두선에 그치 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디자인 전략’이 전 제돼야 할 터다. 살기 좋은 도시는 ‘보이지 않는 99%’, 그 디테일에서 결정되는 법이니까.

학력 저하와 ‘실력 광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했다.
정반대의 주장도 있다. 과거의 ‘실력 광주’ 정책은 서울대 몇 명 입학시켰느냐, 혹은 전체 수능 1~2등급이 몇 %냐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다수 학생 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반교육적 정책이며, 아이들을 더 이상 목표가 상실된 ‘공부 지 육’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자의 주장처럼 과거식의 ‘실력 광주’를 계속 내걸 고 소수 학생의 일부 대학 진학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 는가? 아니면 후자의 주장처럼 참된 교육 혹은 인성 교 육 운운하며 학력 저하 문제를 계속 합리화하거나 눈감 아 버려야 하는가?
양극단 모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아니라고 본다. 일류 대학 많이 진학시킨 것을 냉소적으로 볼 일도 아니고, 일류 대학 위주의 진학 정책에 밀려 다수의 학 생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안 된다. 또 실 력과 인성 문제는 결코 양자 택일의 주제가 아니다.
교육은 가장 이상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 인 영역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학력 전국 1 위의 전통을 부활함과 동시에 끼와 재능, 감성이 풍부 한 학생들, 무엇보다도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소중 히 여기는 교육이다. 해법의 출발점은 실력의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국·영·수 등 일반 과목을 잘 하는 것,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것, 실용 과목에 흥미 를 느끼는 것, 리더십이 좋은 것, 사람을 잘 사귀는 것

모두 소중한 실력이다. 필자는 이렇게 실력의 개념을 다양화하고, 학생 각자의 끼와 재능, 감성을 살려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참 실력 광주 교육’이 라고 부른다.
더 쉽게 말하면 서울대를 포함하여 세칭 일류대학 혹은 인기학교 가는 학생도 많이 배출하고, 안산 선수처 럼 광주에서 대학 다니면서 세계적 인물이 된 학생도 배출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나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민주 시민도 키워 내자는 것이다.
필자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옛 도청 별관 보존 문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보존 운동’ 등 지역과 학교의 뜨거운 현안에 뛰어들거 나 공론화의 책임을 맡아 해법을 찾은 경험이 있다. 도 중에 비난도 받고 위협 부담도 감수해야 했지만 도전하 면서 해법을 찾는 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게 옳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서 ‘실력 광주’라는 주제가 매우 민감한 주 제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광주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히 제안한다. 교육계와 지 역 사회가 뜨거운 현안인 ‘실력 광주’ 문제를 놓고 치열 하게 토론해 보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학생들의 미래와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면서 바른길 을 찾아 보자.

광주에 ‘월남전 참전 기념탑’이 필요한 이유

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처한 난국을 타개 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파 병은 의료 지원단이었다. 장교 34명, 사병 96명으로 편 성된 제1 이동 외과병원 병력과 10명의 태권도 교관 요 원이 1964년 9월 22일 자유 월남의 수도 사이공에 도착 해 업무를 개시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제2차 파병으로 2천여 명의 건설 지원단(비둘기부대)을 파병했다.
월남 당국은 한국군의 성실·근면·친절성과 능력을 신뢰해, 평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부대 파병까지 요청한다. 그러나 전투부대 파병은 제1·2차의 인도적 인 파병과 달리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여론이 분분했 다.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최고 수준의 환대를 베푸는 한편 주한 미8군 사령관과 주한 미대사 등이 중재·교섭에 나서 한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고심을 거듭했던 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 는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고 1965년 10월 제2 해병 여단(청룡부대)과 수도 사단(맹호부대)을 파병했다. 제3차 파병이었다.
전투부대 추가 파병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 기는 험프리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방한과 브라운 주 한 대사의 역할로 인해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9월 제4차 파병으로 제9사단(백마부대)이 파병됐다. 그 결과 주월 한국군은 1973년 3월 23일 최종적으로

社 說

영광에 이젠 핵폐기물까지 떠넘기나

정부가 영광을 포함한 전국 다섯 개 원 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신규 저장 시설 설치를 추진 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정책의 원칙과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계획에 서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이내 중간 저장 시설을, 37년 이내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 간 저장 시설 가동 전까지라는 전제를 달 긴 했지만,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을 한시적 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원전 소재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핵 없는 세상을 위 한 광주·전남행동’ 등 전국 15개 단체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옛 그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해당 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

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원 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전 국의 모든 원전 부지를 핵폐기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로, 10 만 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위험한 물질이다. 따라서 땅속 500m 깊은 곳에 영구 처 분장을 건설해 묻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수차례 영구 처분장 후보지 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 밀집으로 수십 년간 불안에 시달려 온 지역에 핵폐 기장까지 떠안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단 지 원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조 차 없이 핵폐기물의 영구 보관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 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 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고발사주 특검 여야 모두 말뿐이었나

정치권에서 ‘특검’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말잔치를 벌이 더니 지금은 아무 말이 없다. 특검 실시를 말로만 주장했을 뿐 실제로는 별 의지가 없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 보의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을 놓고 ‘성 의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 고 하지는 영똥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 으로 진척이 못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 다. 이에 윤 후보는 “특검 문제는 부산저 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 가”라고 응수했다.
두 후보 모두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말 로만 특검 도입을 주장한 셈인데, 결국 시 간 끌기를 아나하는 의심을 낳았다.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는 윤석열 후 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 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 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 역시 검찰 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별 진척이 없다.
이후 ‘특검’이란 말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 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여야 후보들의 ‘가죽 리 스크’가 연일 보도되면서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바로 특검 수사가 시작돼도 의혹의 전도 를 밝히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는 만큼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말대로 깨끗하게 털고 넘어 가는 차원에서라도 조건을 붙이지 말고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 대한 ‘쌍특검’을 실 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매년 연말이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골라 발표하 다. 그 해의 정치·사회·경제 상황 등을 비 유하거나 상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네 개의 한자로 이뤄진 짤막한 말이지만 어찌 그리 비유가 적절한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율해는 유독 정치 권을 비판하는 사자성어를 꼽은 교수들이 많았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88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2%가 율해의 사자성어로 ‘묘 獬 豸 觸 邪 無 等 鼓’를 뽑 았다. 고양이와 쥐가 함 께한다는 뜻이다. 도둑 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통속이 되 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들의 땅 투기 사건 같은 사회 분위기와 정 치권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자와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나 정치권이 부정과 결탁해 사적으로 이 익을 챙기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 에는 내년 대선을 걱정하는 의미도 담겼 다. 매일 터져 나오는 여야 대선 후보 가 족들의 비리 의혹 때문이다.

교수들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고사성어는 ‘인곤마핍’ (人困馬乏) 이었다.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 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과 나 라가 피곤한 한 해였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치권의 비상식적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연일 여야가 서로 헐뜯 으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극 에 달하고 있다. 오죽하면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국가를 맡겨야 하는 상 황이냐’는 한탄까지 나 올까.
이를 반영하듯 교수들이 세 번째로 많 이 꼽은 고사성어는 ‘이천투구’ (泥田鬪狗)였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 이다. 코로나19로,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 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오 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매일 싸우고만 있 어서야 되겠느냐며 정치만을 비친 것이 다. 내년에는 희망적이고, 국민들의 마음 을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사자성어가 나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반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